

# 지자체와 글로벌30 성공모델 구축

### 전북대, 완주·장수·정읍·익산 등과 잇달아 협약 수소·농생명·팻바이오·동물헬스케어 등 협력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자체와 손잡고 글로벌30 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안군과 협약을 맺은 바 있는 전북대는 이달 4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장수군 정읍시, 익산시 등과 잇달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완주군과의 협약을 통해 글로벌30 사업의 본 지정에 위한 전방위적 협업을 추진하고, 완주군이 강점이고 있는 수소산업 분야의 성장과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완주군은 전북대가 글로벌30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할 예정이며, 전북대는 (가칭) 완주군 발전연구소 설립을 통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장수군과는 농생명·문화·관광산업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가칭)정읍시 발전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어 정읍시와도 팻바이오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가칭)정읍시 발전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뜻을 모았다.

글로벌30에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및 시설 사용에 협력해 동물헬스케



전북대학교가 도내 지자체와 손잡고 글로벌30 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다. 4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글로벌30 추진 협약식

어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소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글로벌30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싱크탱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을 설립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 지원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 도내에서도 교권침해 발생 시 법률 지원

###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10명에 위촉장

전북지역에서도 교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침해 전담 지원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2024년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다.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1명, 완주 진안 1명, 임실 순창 무주 장수 1명, 고창 부안 1명을 배정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폭력인 발생한 경우 △교권활동 침해로 인한 분쟁사항 △교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교육 현장에서 분쟁이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내년 공립

### 중등교사 402명 선발

### 16~20일 원서접수

### 1차 시험 11월 25일

### 2차 내년 1월 23~24일

2024학년도 전라북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기본 계획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됐다.

4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공립은 국어 교과 등 31개 과목에서 총 402명(장애 35명 포함)을 선발해 전년보다 74명 증가했으며, 사립은 사립학교 교사 위탁선발을 신청한 34개 법인이 24개 과목에서 153명을 선발(제1차 시험에 한함)한다.

원서접수는 16~20일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crntn.ga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11월 25일 치러지고 공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8일 발표된다.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사립학교 법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차 시험은 내년 1월 17일, 1월 23~24일 3일 동안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2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akr](http://www.jbe.gakr), 교육소식-입력사항)고 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3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이 4일 오후 전주중공업고 시청각실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인턴십 참여학생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내 직업계고 학생 57명, 호주로 인턴십

### 도교육청, 글로벌 인턴십 발대식... 시드니 등서 6주간 운영

2023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현장 학습) 발대식이 4일 오후 전주중공업고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현장학습 참여학생과 학부모, 담당교사, 인솔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충실한 현장학습 운영을 다짐했다.

올해 글로벌 인턴십 참가학생은 총 57명으로, 호주 1기 시드니와 2기 브리즈번에서 각각 실시된다.

먼저 1기 시드니에서는 기계가공 5

명, 목공·조각·미장·타일 2명, 응집 3명, 원예조경 6명, 전지전자 6명, 조리·제과·제빵 7명 등 29명이 참여한다.

이어 2기 브리즈번에서는 기계가공 4명, 말사육 2명, 사무회계·서비스 6명, 자동차정비 3명, 조리·제과·제빵 8명, 헤어·피부·네일 5명 등 28명이 글로벌 인턴십을 진행한다.

시드니 지역은 10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브리즈번 지역은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한편 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국내에서 방과후 원격 호주 현지 영어교육 80시간, 사전 캠프운영을 통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영문으로 작성하기, 산업안전교육 등 사전 준비를 충실히 준비해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인턴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운영 취지를 되새기며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연수에 충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 교수 승진

### 직원 전보 임명장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4일 본부동 2층 총장실에서 10월 1일자 교수 승진과 직원 전보 인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열린 수여식에서 승진임용에는 국어교육과 서현석 교수(정년보장), 직원 전보에는 총무처 양지(식품위생서기보), 도서관 김혜숙(대학회계직8급) 등이다.

박병춘 총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 온 두 선생님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 계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해 동료들의 귀감이 되시길 바란다"며 환영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자연의 소중함 깨달아요'

### 전북대, 9~10월 지역 유·초등생 대상 숲 체험 교육

숲 체험 교육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전주 덕진학술림(간지산)을 활용한 숲 체험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전북대는 올해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지역 어린이들에게 숲을 통한 힐링과 새로운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전주북초등학교, 14일 완주구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숲 체험교육은 숲에서 보물찾기와 놀이기, 해먹놀이, 식물 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북대학교가 지역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숲 체험 교육은 이달까지 진행된다.

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북대 농생대 학술림장은 "숲 체험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공감을 통한 혜택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숲 관련 행사를 확대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거점국립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스포츠단, 전국체전 출전

### 씨름·우슈·펜싱·복싱 등 4개 종목 27명

호원대학교 스포츠단이 4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단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출정식은 강희성 총장 정의봉 부총장 이명찬 스포츠단 단장 및 출전선수와 종목별 지도자, 출전선수 총 50여 명이 관계자와 함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출정식에서 선수대표로 씨름부 이현성 선수와, 펜싱부 최예원 선수가 본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은 "호원대와 전라북도 함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출정식에서 선수대표로 씨름부 이현성 선수와, 펜싱부 최예원 선수가 본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은 "호원대와 전라북도 함께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선수단 모두 부상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호원대



호원대의 명예를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호원대는 우수, 펜싱, 씨름, 복싱 등 4개 종목에 총 27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3~19일 전남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